

진주시의 국제교류 활동

1. 이 글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가 올해 국제적인 수준에서 실행한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도시의 당면과제를 문화자산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결해 감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진주시는 2019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될 무렵, 크게 세 가지의 당면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첫째는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진주시는 근대 산업화에서는 소외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도시, 역사도시라는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진주 인근에 항공우주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많은 공기업들이 진주로 이전하게 된다. 그 때부터 진주에서는 뒤늦은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진주시의 정체성을 흔들리고 있었다. 진주 시민들은 산업과 문화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희망하고 있었다.

두 번째 당면과제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는 일이었다. 도시 외곽에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인근 지역이 개발됨으로써 진주성 부근의 도심 지역이 공동화되는 현상이다. 진주의 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심 상권이 죽어가고 있었다. 중심가는 저녁이 되면 어두컴컴해지고 사람들의 통행이 드물고, 밤문화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면서 진주관광은 주로 낮에 진주성을 둘러보고 떠나는 관광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민들은 주야를 막론하고 볼 것이 많아서 관광객이나 여행자가 머물고 가는 도시를 원하고 있었다.

셋째, 진주시는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격차를 실감하고 있었다. 진주시의 면적은 720km² 정도이고, 그 중 도심과 농촌의 면적의 비율은 2:8, 인구비율은 8:2이다. 특히 여러 종류의 문화시설이 도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농촌 지역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진주시가 포용력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심지역 사람들과 농촌지역 사람들이 적어도

문화적으로는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었다.

2. 진주시는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커다란 정책적 전환을 하게 된다. 문화를 사회, 경제, 환경과 더불어 도시 행정의 4대 기둥의 하나로 여기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 가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일이다. 둘째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파이럿 도시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문화를 통해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법정 문화도시가 되려고 하였다. 지난 5년간의 노력하는 가운데, 2019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UCLG 파이럿 프로그램을 완수하였으며, 올해는 법정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3. 이 세 가지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주문화를 국제화하는 일이었다. UCLG 파이럿 도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9년 진주시의 문화현황과 문화정책을 자체 평가한 결과에서도 진주시가 고유한 문화자산을 잘 보존하고 전승해 온 데 반해, 그것을 창의적으로 산업화하고 국제화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면서 진주시 문화자산을 국제화하기 위해 네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 중 첫 번째는 <진주 민속예술/전통공예 비엔날레>, <진주 아티스 인 레지던스>, 그리고 <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 저널> 간행 사업이다. 이것과 더불어 넷째, 국제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도시들과의 지식, 경험, 그리고 실천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해외의 예술가들을 진주에 초청하여 한달간 머물며 진주의 예술가들과 공동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진주의 문화자산을 국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주의 예술가들에게 예술의 국제적인 트렌드를 이해하게 하고, 진주의 전통예술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 창의도시들의 예술가들을 초청함으로써 개발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개발협력사업이란 개발도상국의 예술가들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해외 예술가들이 진주에 와서 활동한 기간은 10월 전후 1달간이었지만, 이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개되었다.

먼저 지난 6월 진주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개발협력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었다. 이어서 7월부터 해외도시들에 대해서 진주시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 안내와 홍보 작업이 시작되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협의하여 공모에 지원한 여러 해외 예술가들 중 개발협력 대상에 속하는 도시의 예술가 세 사람을 선정하였다. ①인도네시아 암본시의 리오 에프루안, ②태국 치앙마이시의 피앵라위 시리숙, ③트리니다드 토바고 프트오브스페인의 사첼 토마스씨가 선정되었다. 8월에는 그들과 협업할 지역의 단체를 공모하였는데, ㉠푸른버들예약원(대표 남선희), ㉡전통예술원 놀제이(대표: 유진),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대표 강동열) 이 선정되었다. ①-㉠, ②-㉡, ③-㉢는 한달 간의 협업 기간을 통해서 협업 공연을 기획하고 공동연습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그들 공동작업의 결과는 10월 20일 진주성 야외공연장에서 발표되었다. ①-㉠팀은 인

도네시아 암본의 음악과 진주의 춤을 결합한 협업 작품을 선보였다. ②-㉡는 진주의 탈춤과 태국의 란나춤을 결합하여 역병 퇴치를 위한 구나춤(역귀를 물리치는 춤)을 제작하여 공연하였다. ③-㉢팀은 한국의 전통장단과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스틸팬이 어울리는 음악을 공동창작하였다.

세 팀 모두 진주의 민속예술가들과 해외의 민속예술가들이 협업함으로써 각각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새로운 미적 경험을 추구하자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평가된다.

5.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는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와 더불어 격년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이다. 작년에는 전통공예비엔날레가 열렸었고, 올해는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약 7일간에 걸쳐서 민속예술 비엔날레가 열렸다. “다양성-창의성의 토대”를 주제로 걸고 열린 올해 행사에는 레지던스 참가 도시를 포함하여 모두 9개 창의도시의 민속예술단이 참가하였



다. 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합류하기 전인 2019년 6월에 열렸던 제 1회 행사에서 6개의 참가도시 중 필리핀의 바기오시 하나만 창의도시였던 것에 반해, 올해는 참가도시 모두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였고. 음악 창의도시인 암본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들이었다. 지난 5월부터 창의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참가도시 공모와 브라질 산토스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차회의에 참가한 진주대표단의 홍보를 통해서 모두 12개 도시가 참가 신청을 접수했다. 예산 상의 이유로 그 중 7개 도시만 초청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나이지리아의 비다, 태국 수코타이, 미국 파두카, 부르키나 파소의 와가두구, 필리핀의 바기오, 인도네시아 암본, 이집트의 애스완 등 7개 해외공연팀의 54명의 예술가들이 진주시의 7개 공연단체 48명의 예술가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였다. 태국 치앙마이와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예술가의 예술가 2명도 참가하였다. 행사는 개막공연과 폐막공연, 본공연, 택배공연, 교류회와 워크숍, 레지던시 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개막공연과 본공연은 진주시내에 자리한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행해졌고, 폐막공연은 진주성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었다. 반면에 예술택배공연은 관봉초등학교, 지수면의 고택 등 진주시 외곽의 문화소외지역, 취약계층거주지 등에서 진행되었다. 예술택배 공연은 사회적 포용성이라는 유네스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행사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들 간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민속예술을 국제무대에 진출하게 하며, 진주시의 민속예술을 국제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에 잘 부합하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유네스코의 관심지역인 아프리카에서 세도시가 참여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유네스코의 가치를 잘 실현한 이벤트였다. 특히 폐막공연의 경우, 한국의 전통악기와 장단에 맞추어 모든 출연자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광경이 연출되어 관람자들에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폐막공연을 관람한 창의도시 대표자들은 국제 문화교류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 창의도시의 미션을 실현한 놀라운 이벤트라고 평가하였다.

비엔날레에 참가해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로 협력해 준 각 도시의 예술가들과 대표단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6. 진주시는 올해 매우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였다. 지난 7월 브라질 산토스에서 개최된 제 14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차회의에 4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신중우 부시장을 단장으로 정병훈 창의도시 운영위원장, 강동민 문화관광국 문화산업팀장, 성윤학 진주문화관광재단 창의도시팀장이 참석하였다. 신중우 부시장은 시장포럼에 참석하여 진주시의 창의도시 활동을 <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저널> 간행을 중심으로 소개하였고, 정병훈 위원장은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미팅에 참가하여, 진주시의 국제교류행사인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진주아티스트인레지던스 등을 홍보하였다. 그는 공예 및 민속예술 클러스터 연차회의를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가 열리는 10월 하순 진주시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여러 도시들의 호응을 얻어내었다. 결과적으로 이 회의에서 올해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를 진주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회의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7. 2022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 연차회의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동안 진주시 진주지식산업센터와 진주시 일원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서브네트워크(의장 메리 해몬드, 파두커 포칼포인트)와 진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의 연차회의 준비팀이 주관한 것이다. 이 회의의 목적은 크게 4 가지였다. 첫째, 2021 신규 가입도시를 소개하고 환영하는 것, 둘째, 연차회의의 주제인 “창의분야 간의 융합과 협업”의 가능성과 방법을 논의하는 것, 셋째, 서브네트워크 내의 여러 위원회 활동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것, 다섯째, 서브네트워크 도시들간의 친목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 등이다. 이 회의는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서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서브네트워크 59개 회원 도시 중 30개 도시(오프라인 11, 온라인 19)에서 50명(오프라인 25명, 온라인 26명)의 포컬 포인트 혹은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이외에 음악 도시 암본에서 1명의 포칼포인트가 발표자로 참가하였다. 참가도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 참가: Aswan, Baguio, Bida, Carrara, Gimhae, Icheon, Jinju, Ouagadougou, Paducah, Santa Fe, Sukhothai, Ambon(음악), 온라인 참가: Al Ahsa, Bursa, Chiang Mai, Como, Duran, Fabrino, Gabrove, Kanazawa, Kuthaya, Manises, Nakuru, Nassau, Perth, Porto-Novo, San Christobal, Sasayamam Suzhou, Trinidad, Weifang 총 31개 도시.



10월 19일 오후 4시부터 개최된 첫날 회의에서는 먼저 박초연 교수(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유네스코 창의도시 운영위원)의 사회로 개회식이 거행되었다. 정병훈 진주시 포컬 포인트(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가 개회사를 하였고, 이어서 메리 하몬드 서브네트워크 의장이 환영사와 더불어 회의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진주시를 대표하여 환영사를 하였고, 한경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데니스 백스 UCCN 사무국 담당자가 영상으로 축사를 하였다.

이어진 세션 1은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오사카 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의 “팬데믹 이후 창의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의 기조발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그 다음에 2012년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들의 소개가 있었다. 김해시와 비다(Bida)시가 먼저 발표를 하고, 진행 일정 때문에 다른 도시들 소개는 그 다음 날로 미루어 졌다. 저녁 7시부터는 진주시장 초청 만찬이 있었다.

20일, 둘째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세션 2는 전날 진행하지 못했던 신규도시 소개가 앞서 진행되었다. Como, Manises, Perth, Weifang이 도시와 주요활동을 소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창의분야간의 융합과 협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으로 활기가 있었다. 위티야 피통 나푸(수코타이 공동포컬 포인트, 나레수안 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컨퍼런스의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제 1: “융합과 협업”, 피터 아이브(산타페, 전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코디네이터)
 - 발제 2: “공동체 내의 창의적 지식의 역할”, 주세페 비아기니(카라라, 창의지식재단 창립자)
 - 발제 3: “UCCN 거버넌스의 새 길: 국가 코디네이션과 새로운 UCCN 규정 : 창의도시 파브리아노의 두 가지 경험”, 비토리오 살모니 (파브리아노 포컬 포인트, 이탈리아 창의도시 국가 코디네이터)
 - 발제 4: “네트워크 간 창의성 협업”, 로니 로피스(암본, 포컬 포인트, 파티무라대학 교수)
- 신중우 부의장 주최로 저녁 만찬이 행해졌고, 이후 시간에는 진주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남강 유등축제를 나룻배를 타면서 관람하였다.

셋째날에는 세션 3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각 도시의 포컬포인트들만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미팅이었다. 이 미팅은 시간대가 다른 전 세계 각 대륙에서 많은 포컬포인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각각 한번씩 진행하였다.

이날 비즈니스 미팅은 모두 메리 하몬드 의장이 진행하였다. 먼저 메리 의장은 코디네이터 보고를 통해서 신규도시 선정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2021년에 19개 후보 도시 중 10개 도시가 선정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어서 멤버십 모니터링 리포트 심사 내역을 보고하였는데, 현재: 2021년에 제출된 20개 도시들의 보고서가 심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UCCN 산토스 연차 회의의 결론을 상세히 보고하면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각 도시의 사업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장은 앞으로 네트워크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산토스 회의에서 결정한 지역 코디네이터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다섯 개 지역의 대표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 Africa: 6 cities—Gitau Thabanja, Nakuru (Kenya)
- 2) Arab States: 7 cities—Al-Ahsa (Saudi Arabia)
- 3) Asia & the Pacific: 21 cities—Byung Hoon Jeong, Jinju (Republic of Korea)
- 4) Europe & North America: 15 cities—Anabela Dias, Barcelos (Portugal)



5) Latin America & Caribbean: 10 cities—Marianne Gaudêncio, João Pessoa (Brazil).

이어서 우리 서브네트워크에 속한 각 위원회의 사업보고가 있었다. 먼저 웹사이트 위원회의 주세페 비아기니 대표는 웹사이트 제작 및 운영 계획 발표하였다. 우리 서브네트워크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게 된다. 거버넌스 위원회의 피터 아이브 대표는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그룹 거버넌스 규정”을 발표했고, 채택 여부를 내년 3월 리모주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서 서브네트워크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창의지식재단 창립자 조세페 비아기니씨가 “창의도시의 빵” 프로젝트의 중간보고, “실의 연결, 문화의 연결”(“Connecting Threads, Connecting Cultures”) 계획을 발표하였다. 진주시는 이 두 프로젝트 모두에 참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세션의 마지막에 <북아메리카 창의도시 선언>에 대한 지지를 공유하기로 했고, 2023년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를 3월 23일-25일 리모주(프랑스)에서 개최할 것을 공지했다. 또한 현재 공식으로 있는 서브네트워크 부의장도시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다. 저녁 만찬 이후에 진주세계 민속예술 비엔날레를 다함께 참관하였다.

연차회의를 마치고, 메리 하몬드 이장을 비롯한 준비위원들은 짧은 준비 일정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회의를 준비해 준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와 연차회의 개최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대표들을 용승히 대접해 준 진주시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이번 연차회의가 앞서 언급한 회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하였다.

8. 진주시의 국제 활동은 진주시가 다른 도시들과 지식과 경험, 그리고 스킴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창의도시와 관련된 사업, 행사, 회의를 주관하는 진주시의 창의도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진주시민들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며, 사회적 포용력을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정병훈

(진주시, 포컬포인트)